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화순군,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급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개별지표로 평가를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 왔다.

재해사건예방·위험지구 개선 등 힘써

“안전한 화순 만드는데 온 힘 다할 것”

화순군은 재해사건예방 및 사전홍보,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등 다방면으로 각종 재난관리에 힘쓴 결과 이번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

개인포상과 포상금 지급, 보조금 지원 등을 받게 되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난관리평가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관리 수

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군민과 각 실과소, 읍면 모든 공무원이 재난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교육, 행사, 훈련 등 재난사건대비에 함께 노력한 결과로서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안전한 화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태풍 '쁘라삐룬' 긴급 회의 개최

순천시는 올해 장마기간 중 발생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상황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난상황 대비·대응에 나섰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전영재 순천시 부시장은 13개 기능별 협업부서들을 긴급 소집하여 상황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읍·면·동의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침수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징후 발견 시 즉시 주민대피를 실시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

다. 또한 집중 호우에 대비해 배수구와 집수구등을 정비하고,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과 입간판, 공사장 자재 등 결박상태를 점검하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순천시 전영재 부시장은 “태풍과 장마전선이 동시에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도 기상 상황 종료시까지 순천시의 재난구복 안전문자 내용등을 확인하면서, 위험예상지역 신고등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위한 건의서 채택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道-市-대학교 MOU 체결 담겨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광양지역의 두 개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

지 않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앙 차원의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대학교 간 정상화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한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한 건의서에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시민대책협의회는 그동안 협의회 구성과 장학금 확대 지급,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대학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큰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것.

이유를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광양보건대를 방문해 대학교 정상화 지원계획을 발표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 정부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재정적

인 지원과 대학교 정상화 노력을 위한 전라남도과 광양시, 대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내용을 담아 전라남도에 MOU 체결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며 대학의 존재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설립자의 횡령 비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나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우 (제)백운장학회 상임이사,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사회단체장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부터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 각종 공모전 수상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영상공모전 수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디자인학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제9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송수련, 이지강, 손원일(3년) 학생이 출품한 '사람들의 인식에 가려진 중소기업'이라는 작품이 동영상 분야 최우수상(교육부추진)을 거머쥐었다.

이 작품은 흥미 있는 아이러니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최덕수열사 30주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최덕수열사 30주기 작품 공모전'에서 장용주, 정인찬, 유진호(3년) 학생의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UCC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5·18민주화운동의 희

생정신과 최덕수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학과장인 정우용 교수는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는 탄탄한 실무능력을 갖춘 영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산학협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영상전문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국내 영상문화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는 국립대 유일의 영상디자인학과로, 작년에는 '제1회 도아첸 UCC 공모전'에서 대상, 2016년에는 '인성 롤린콘텐츠 공익 캠페인 UCC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영상 관련 공모전에서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발표에 의하면, 취업률 95.7%를 달성해 국립대 예체능계열 취업률 1위 학과로 선정되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첫출근 프로젝트'의 취업전략경진대회와 제1기 수료식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공사

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14층 대회의실에서 '첫출근 프로젝트'의 취업전략경진대회와 제1기 수료식이 열렸다.

첫출근 프로젝트는 광양만권내 지역 구직자들을 대

해서 120시간의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양만권 HRD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37기수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공사는 광양만권 HRD센터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업준비생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양만권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 이창동, '가가호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나주시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동렬, 최중구)는 지난달 27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웃 주민들의 보금자리 개선을 위한 '가가호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뇌출혈로 장기간치료를받던 김 모(남, 50대)씨 가구로서 위원들은 각종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 찬 주거지 내부와 수풀이 우거진 마당 외부를 말끔히 정리해 김 씨에게 깨끗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